

종사상 지위분류에 따른 산업분포변화: 부산, 1994~2004*

강인주¹ · 남광우²*

The Change of Industrial Distribution Pattern by Worker Status Classification : Busan, 1994~2004*

In-Joo KANG¹ · Kwang-Woo NAM²*

요 약

도시산업구조의 진단과 예측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산업관련 도시공간구조 연구들은 주로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공간분포의 측정에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의 1994년 및 2004년 종사상 지위별 자료를 수집하고 동 변화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분석 단위를 일치시킨 후 GIS를 활용하여 종사상 지위분류체계 자료를 활용한 도시산업구조의 질적 변화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GIS환경에서 부산시 산업구조의 종사상지위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은 영세한 생계형으로 진행되어 부산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통계상으로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지역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도심지는 쇠퇴하는 반면 신도시나 신흥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의 행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한다.

주요어 : 산업구조, 종사상지위, 공간분석

ABSTRACT

Diagnosis and Prediction of urban industrial structure is a key subject for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lan. By this time, studies of industry-related urban spatial structure have been concentrated on measurement of space distribution by industry type mainly using data about urban industries or total worker numbers. Now, status of workers become an

2007년 10월 22일 접수 Received on October 22, 2007 / 2007년 11월 20일 심사완료 Accepted on November 20, 2007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Dept. of Urb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yungpook University

2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Dept. of Urban Engineering,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University

* 연락처자 E-mail : kwnam@ks.ac.kr

important issue so this study analyzed qualitative change of urban industrial structure in the view of space using work status classification system. For that, data for work status in 1994 and 2004 were collected in towns and villages, and space analysis units were coincided based on change data between 1994 and 2004. Then, it analyze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employment through qualitative standard called work status using GIS.

The analysis results by work status type of Busan industrial structure in GIS circumstance were as below. First, traditional labor intensive industries met a limit and service and wholesale/retail sale industries went to be poor livelihood. Therefore, Busan's employment rate should be decreased and worker numbers were statistically increased, however, irregular and non-wage workers were suddenly increased. So, it was determine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Busan area came down. Second, a traditional downtown area has dwindled;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has been increased in new town or new industrial complex and in the area developed services rath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as data to prepare for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plan through qualitative evaluation called work status as well as to make behavior pattern of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basis of urban development.

KEYWORDS : *Industrial Structure, Work Status, Spatial Analysis*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증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격차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내지는 지역의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총량적인 산업분포관련 자료의 수준을 벗어나 공간적 관점에서 질적 측면의 산업분포 변동성 측정이 요구된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도시들은 정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가공과정을 거쳐 하나의 지식(knowledge)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구체화하여 정의를 내림으로써 적합한 대안의 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그 의미가 있다.

한 도시의 산업분포와 관련된 도시공간구조 연구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도시산업구조의 패턴이나 변화요인의 도출에 집중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국가통계가 제공하는 최소의 공간단위인 읍면동 단위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라는 총량적 개념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여 사업유형별 변화에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산업구조가 갖는 질적 변화의 한 측면인 종사상지위유형에 따른 데이터를 공간적 관점에서 그 변동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리정보화하고 GIS 및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질적 측면에서의 시공간적 분포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이 작성한 1994년과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10년간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

간적 범위는 부산시 행정구역 범위이며 공간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1994년과 2004년간의 경계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분석단위를 일치시켰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분석에는 산업별 부가가치세, 총생산액, 산업종사자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종사자수는 부가가치액이나 총생산액에 비하여 전 산업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총사업체조사보고서가 5년 단위로 발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년마다 사업체 기초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다.

산업의 분류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1991년, 1998년, 2000년 3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분류가 세분화되고 신규산업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2000년 산업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재분류하였다.

TABLE 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산업 분류
A	농업 및 임업(01-02)
B	어업(05)
C	광업(10-12)
D	제조업(15-37)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F	건설업(45)
G	도소매업(50-52)
H	숙박 및 음식점업(55)
I	운수업(60-63)
J	통신업(64)
K	금융 및 보험업(65-67)
L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70-71)
M	사업서비스업(72-75)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O	교육 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87-88)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S	가사 서비스업(95)
T	국제 및 외국기관(99)
Z	전 산업

자료: 통계청, 통계표준분류, 2000

이를 이용하여 부산의 산업분포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방향과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동별 산업종사자 및 사업체의 공간분포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중사상 지위유형별 분석을 지역적 관점과 산업별 관점에서 실시하여 중사상 지위에 따른 지역 및 산업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2. 중사상지위 분류

중사상 지위	내 용
자영업주 +무급가족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및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였으나,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상용 (정규직)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
임시 및 일일 (비정규직)	1개월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
무급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만 받는 자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 산업체 및 종사자의 읍면동별 자료를 GIS자료형태로 구축하고 1994년 및 2004년의 공간단위 및 산업분류 일치화 작업을 통해 ArcView 3.3 및 SPSS 12K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자료가공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선행연구

도시산업구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도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도시산업구조의 다양성이나 전문화가 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재녕(2005)과 최병규(2000)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입지상 분석을 통해 도시산업구조를 파악하였고 주수연과 이선영(2004)은 지역산업부분별 산출액과 부가가치 등을 활용한 입지계수를 통해 경제구조와 산업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의 기능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도출하였다. 임동록(2000)은 제조업, 상업,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활용한 사업체밀도 및 종사자비율을 활용하여 산업분포를 분석하였으며 Ronald N. Buliung (2001)은 Kernel함수를 활용한 비정규직 분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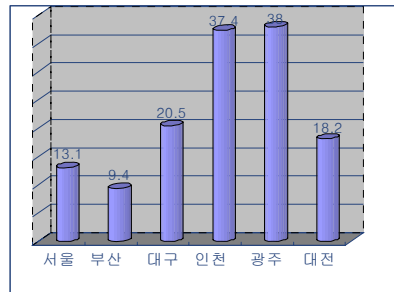
이처럼 앞선 연구들은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용하여 총량이나 단위별 양을 중시하는 모델주도의 분석을 통한 산업유형별 공간분포의 측정에 집중되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개의 데이터 값들을 중시하는 데이터 중심의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의 형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 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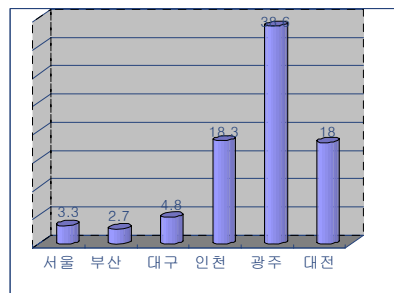
1. 전국비중 및 일자리 평가

1994년과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분석해보면 부산은 6대 특별·광역시 중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낮다. 2004년 부산의 사업체 수는 26만7478개로 1994년 24만4467개에 비해 9.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광주와 인천은 38%와 37.4% 증가했고 대구, 대전, 서울도 10%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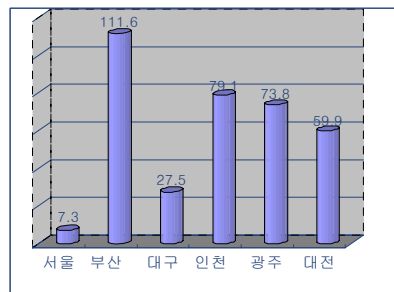
2004년 부산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14만4196명으로 1994년보다 2.71% 상승한 반면 광주는 10년 새 38.5%의 신규 고용이 창출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인천과 대전은 18.3%와 18%씩 늘어 부산과는 대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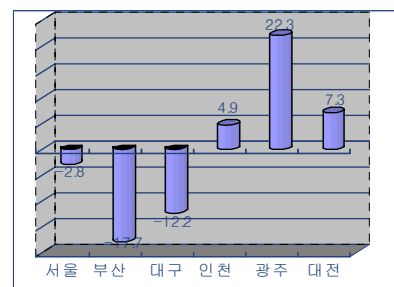
가) 6대도시 일자리수 증감



나) 6대도시 사업체수 증감



다) 6대도시 비정규직 증감



라) 6대도시 정규직 증감

FIGURE 1. 산업별 전국비중

일자리 증가율 1위를 차지한 광주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제조업 일자리가 25.8%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산의 경우는 제조업 일자리가 30.4%나 줄어 42.6%나 하락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감소를 나타냈다. 건설업 일자리 역시 광주가 57.6%로 최고 성장률을 보였으며 부산은 0.8% 하락했지만 다른 특별·광역시 보다는 감소폭이 적은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부산이 24.7% 줄어 다른 도시에 비해 감소율이 크게 높았다.

TABLE 3. 부산시 산업규모

	총 사업체수(개)	총 종사자수(명)
1994년	244,467	1113,956
2004년	266,629	1142,347
증감	+22,162	+28,391

즉,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서비스업은 영세한 생계형으로 발달하여 부산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활동참가율 분석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같은 기간 대구와 서울은 각각 0.4%와 0.1%씩 상승한데 반해 부산의 경우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1.4%에서 2004년 57.8%로 3.6% 떨어졌다. 이는 실업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4년 4.3%인 부산의 실업률은 1998년 8.9%, 1999년 9.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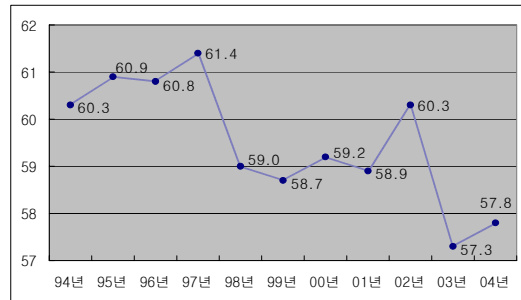


FIGURE 2.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하면서 7대 도시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까지 최고를 기록하던 부산 실업률은 2002년부터 하락하였지만 비정규직을 감안하면 고용구조상 여전히 어려운 여건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산을 제외한 6대 도시는 서울과 대전이 2.8%와 12.2%씩 줄었을 뿐, 나머지 4개 광역시는 모두 정규직이 늘었다. 또 부산의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무려 7만1181명이 늘어 111.6%의 증가를 보였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전년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2004년 부산인구 유출 비율은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0.9%로 나타나 서울 0.5%를 비롯한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추가분석 결과 고용 사정이 나쁜 지역일수록 주출산층의 역외 유출 현상이 뚜렷해 일자리와 인구·출산율 등과의 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됐다. 이 가운데서도 부산은 높은 실업률과 저조한 합계출산율의 역상관 관계가 거의 일치했다.

TABLE 4.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교

구분	(인)	1~4	5~19	20~99	100~499	500 이상
1994년		364,540	218,714	259,763	178,746	921,93
2004년		410,919	259,146	256,488	152,518	65,126
증감(개)		46,379	40,431	-3,275	-26,228	-27,067
증감율(%)		12.7	18.5	-1.3	-14.7	-29.4

3.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변화

부산시 산업종사자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는 10년 새 총 2.7%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고용 규모별로 보면 영세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전체 산업 종사자 대비 1인~9인 사업체 비중이 1994년 42.7%에서 2004년 48.4%로 5.7% 높아진 반면 100명이상 종사자 비율은 24.3%에서 19%로 5.3%나 떨어졌으며 숙박·음식점이 대부분인 1인~4인 사업체의 경우 10년 새 무려 12.7% 증가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1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9.5% 증가한 반면 100인 이

상 사업장은 15%(154개)감소추세를 보여 고용 규모의 영세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4. 종사상지위별 업종구성 변화

종사상지위별 분포변화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정규직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경우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보유한 업면동의 증가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194개로 소분류해 일자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업종별 분포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의 부상과 제조업의 퇴진이었다. 고용 비중 1위~10위권에 소매업이 절반에 가까운 4개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관련 업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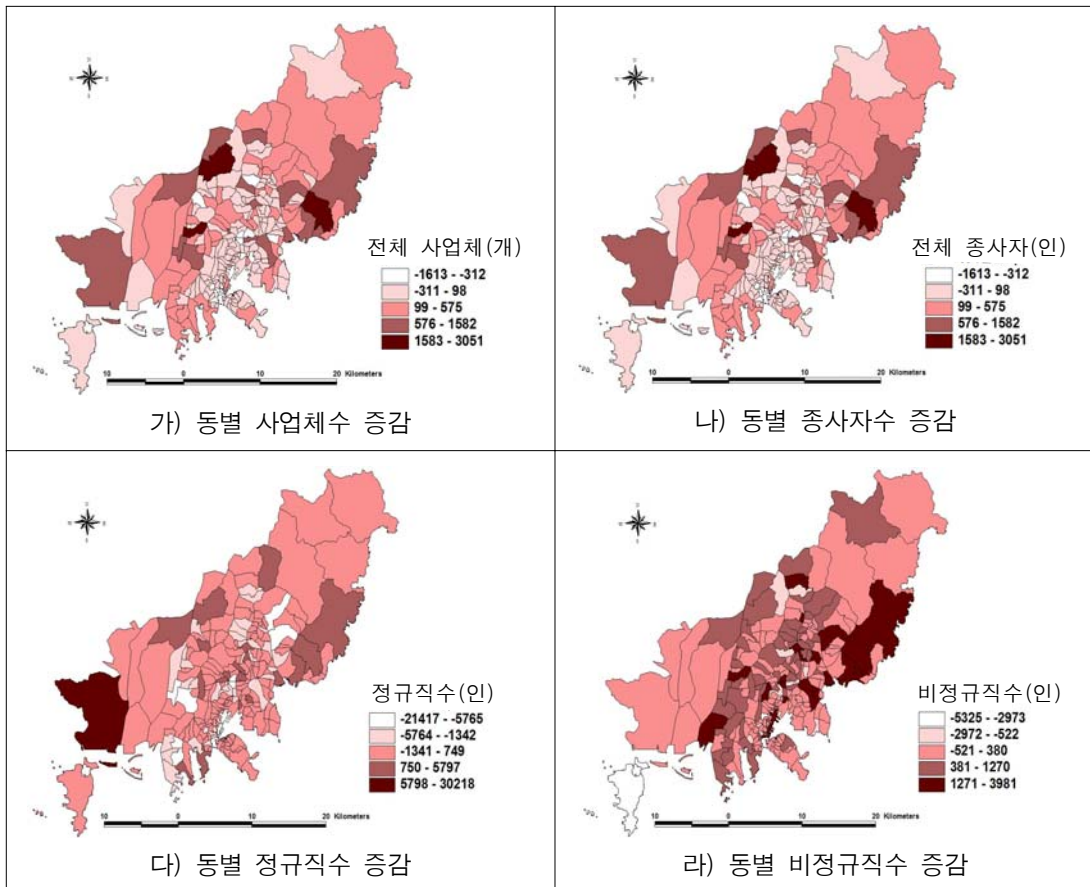


FIGURE 3. 부산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감 변화(1994년~2004년)

1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1994년 8.8%이던 음식점업 종사자는 2004년 2.5% 상승한 11.3%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아파트 건설 열풍의 영향으로 27위(1.24%)에서 6위(2.08%)로 상승했다. 방문·통신판매를 일컫는 무점포 소매업은 0.47%에서 2004년 1.88%로 비중이 증가하며 62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대표적 1위 사업장인 음식료품 및 담배판매의 경우 2004년 도소매업을 합친 비중이 3.58%로 2위인 육상여객운송업(3.56%)보다 높았다. 1994년 고용비중이 0.23%에 머물던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은 1.88%로 늘며 전체 10위로 상승했다. 이는 고용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률 증가가 인력과전 및 공급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영세소매업이나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직업군이 고용비중 상위권에 포진되어있고 부동산 중개업 및 무점포 소매업의 경우 임금 대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직업 안정성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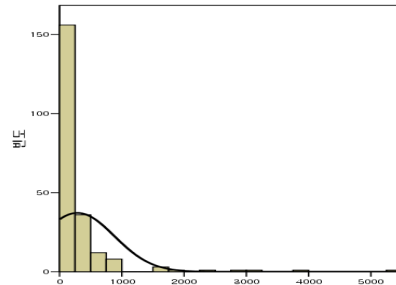
반면 과거 부산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신발제조업의 경우 1994년 고용비중 4.02%로 2위에서 2004년 1.15%인 29위로 크게 떨어졌고 봉제의복 제조업 비중도 3위에서 19위로 낮아졌다.

1994년에 비해 고용비중에 1%이상 상승한 직종은 음식점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무점포소매업, 의료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5개였다. 반면 보험 및 연금업, 봉제의복 제조업, 신발제조업은 1%이상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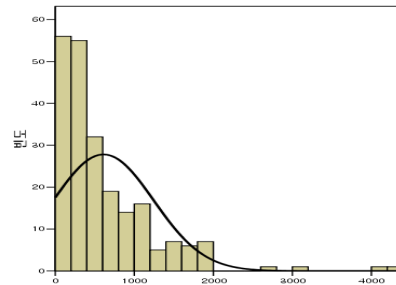
이와 같이 부산은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영세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발달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취업기회를 제한당한 청년층의 이탈로 인해 노동력의 고령화가 초래되고 있다.

5. 지역별 일자리 분포변화

부산의 읍·면·동별 일자리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시가지나 신항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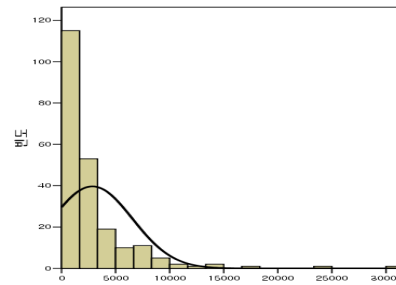


가) 19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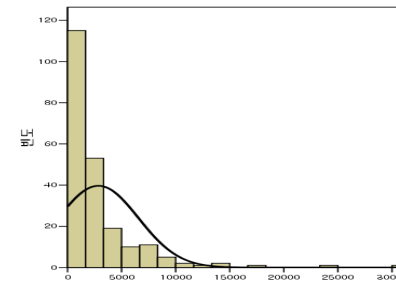


나) 2004년

동별 비정규직 종사자수 도수분포도 변화



다) 1994년



라) 2004년

동별 정규직 종사자수 도수분포도 변화

FIGURE 4.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분포변화

TABLE 5. 종사상지위별 증감 일자리

*()은 순위

업종	자영업주+ 무급가족(인)	상용근로자(인)	무급(인)	임시 및 일일(인)
도소매업	65,484 (1)	11,992 (3)	20,735 (1)	-25,973 (16)
숙박 및 음식점업	53,054 (2)	21,564 (1)	4,389 (4)	-11,919 (1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0,767 (3)	3,817(7)	-3,640 (18)	-5,087 (13)
운수업	19,956 (4)	293 (12)	4,283 (5)	-2,810 (12)
제조업	18,625 (5)	15,235 (2)	338 (9)	343 (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329 (6)	4,762 (6)	0 (13)	-109,708 (18)
교육서비스업	5,315 (7)	7,423 (4)	6,019 (3)	7,742 (4)
사업서비스업	4,353 (8)	6,031 (5)	1,679 (7)	25,622 (1)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3,917 (9)	1,299 (11)	2,435 (6)	7,833 (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598 (10)	1,628 (9)	-56 (16)	13,246 (2)
건설업	2,628 (11)	-640 (17)	268 (10)	-823 (11)
금융 및 보험업	672 (12)	-5,460 (18)	17,889 (2)	-26,873 (17)
통신업	352 (13)	1,343 (10)	548 (8)	784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 (14)	23 (13)	-1 (14)	386 (6)
농업 및 임업	0 (15)	-15 (15)	0 (11)	-56 (9)
어업	0 (16)	-106 (16)	-3 (15)	206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 (17)	1,974 (8)	-572 (17)	-7,580 (14)
광업	-2 (18)	18 (14)	0 (12)	-352 (10)
전 산업 합계	208,062	71,181	54,311	-135,019

은 풍부한 고용 창출을 보였지만 전통적인 도심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4년과 2004년의 산업별 종사자 중심점변화를 다음의 수식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bar{X} = \frac{\sum_{i=1}^n f_i x_i}{\sum_{i=1}^n f_i}, \quad \bar{Y} = \frac{\sum_{i=1}^n f_i y_i}{\sum_{i=1}^n f_i}$$

\bar{X} , \bar{Y} = 중심점 좌표

x_i , y_i = 각 동별 중심 좌표

f_i = 가중치(각 산업별 종사자수)

분석결과 그림 5와 같이 제조업의 중심점은 강서구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서부산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부동산업은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동북방향으로 중심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행정의 경우 시청의 이전 등으로 인해 서쪽으로의 이동을 보였다.

이들의 급격한 중심점 이동으로 보아 신도시나 신흥공업단지가 형성된 지역은 풍부한 고용 창출을 보였지만 전통적인 도심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1994년 및 2004년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비정규직 및 정규직의 분포상황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을 4개의 범주에 따라 교차분석하여 교차표를 작성하여 두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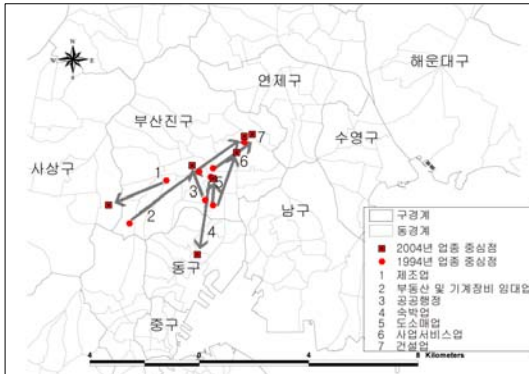


FIGURE 5. 산업별 종사자 중심점 이동

의 값이 공유하는 지역을 파악한 후 1994년과 2004년의 분포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6과 같이 교차분석한 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원도심지역인 중앙동 및 부전동 지역은 종사자수의 감소 및 정규직비율의 완만한 증가, 비정규직비율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종사자수나 정규직 면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일자리 1위는 수출입 관련업체와 은행, 향만물류기업이 집중된 중구 중앙동이었으며 부산시청 이전과 옛 도심의 쇠퇴로 종사자수가 10년 새 14.9%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산의 하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종사자수 및 정규직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및 비정규직비율의 감소를 보인 지역은 녹산동으로 신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강서구 녹산동의 경우는 1994년 1938명에 불과하던 종사자가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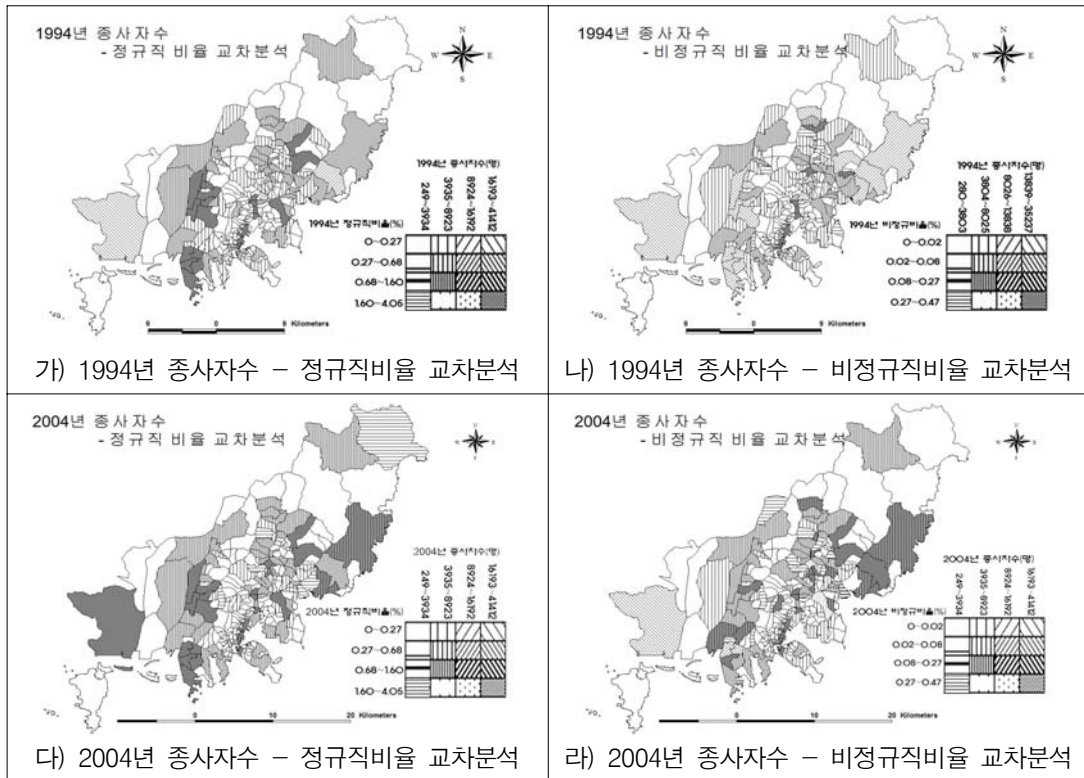


FIGURE 6. 중사상 지위별 분포변화

TABLE 6. 종사자대비 종사상 지위 변화(1994년~2004년)

	증 감		읍·면·동	
정규직 변화	종사자 ↑	정규직 ↑	녹산동, 좌동, 우1동, 대저1동 등	
	종사자 ↓	정규직 ↑	구서1동, 전포동, 화명동, 부전1동, 부전2동 등	
	종사자 •	정규직 ↓	금사동, 대저2동, 삼락동, 쾌법동, 등	
	증 감		읍·면·동	
비정규직 변화	종사자 ↑	비정규직 ↓	녹산동, 감전동, 학장동 등	
	종사자 ↑	비정규직 ↑	좌동, 우1동, 쾌법동, 정관읍, 다대1동, 장림1동, 장림2동 등	
	종사자 •	비정규직 ↑	우2동, 대저1동 등	

에는 3만3199명으로 1613%나 증가했다. 정규직비율에서는 95.3%에 달해 1위로 나타났으며 중앙동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녹산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강서구 녹산·신호·명지동 일대에 대규모 공업 용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이 지역의 경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양산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기장읍도 동부산권 발전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와 일자리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구공업단지의 경우 종사자수 및 정규직비율의 변화는 미비하였지만 비정규직비율 증가를 보였다.

부산 제조업의 중심이던 사상공업단지 내 삼락동·학장·감전1동은 10년 새 14.3%~20.8%의 종사자가 감소했다. 금사공업단지의 중심인 금사동 역시 18.2%줄었다. 기업의 역외 이전이 산업공동화마저 초래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비정규직에선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넷째, 신도시의 경우 종사자수, 정규직비율 및 비정규직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1994년 종사자가 294명에 불과하던 해운대구 좌동은 신시가지 입주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1만2498명으로 늘었다. 인접해 있는 우1동

도 5914명에서 12,722명으로 115%늘었으나 정관과 더불어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의 증가로 비정규직의 증가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자영업 종사자수 1위는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을 끼고 있는 부전1동이다. 2위는 사상구 쾌법동으로 1994년 8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자영업 종사자도 3505명에서 6128명으로 75%나 증가했다.

이는 이곳의 입지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2호선 개통, 사상역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근대 대형 쇼핑몰·영화관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서부산권 최대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신라대 동서대 동의대 등 5개 대학이 있고 중·고등학교의 분포까지 고려하면 10대~20대의 젊은 층 인구유입이 높은 편이다. 쾌법동에 특별한 공장이 없는 점을 미뤄 자영업 종사자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초량3·범일2·범천1동 등 구별 대표 상권이 형성된 동은 사업체 종사자수에서 약간의 변동만 있었을 뿐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

도시산업구조의 변화는 도시인구분포나 고용 등 경제구조의 측면은 물론 도시공간변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도시산업체 자료나 총 종사자수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가공하여 활용되어졌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종사상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종사상 지위분류체계 자료를 활용한 도시산업구조의 변화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산업분포 및 종사상 지위별 분석 결과 6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사업체 및 일자리 증가율과 함께 제조업의 큰 감소와 영세한 생계형 서비스업의 증가로 고용흡수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에 따른 산업분포를 분석한 결과 통계상으로는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총종사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종사자수 규모별 사업장 분석결과 고용규모면에서도 영세화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산업별 변화에서는 과거 부산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영세규모의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발달해 산업구성 분포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구군별/읍면동별 일자리 10년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적으로는 전통적인 도심지는 쇠퇴하는 반면 신도시나 신항공업단지 형성된 지역의 일자리가 증가경향이 컸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도심으로서 기하학적인 불리한 입지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은 여전히 일자리 수나 정규직비율 면에서는 각각 1위 및 2위를 보이고 있어 도심으로서

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효율적 도시공간구조 유지차원에서 원도심의 강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의 형태적 패턴 뿐 아니라 종사상 지위라는 질적 평가를 통한 장기적 차원의 산업발전계획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KAGIS**

참고 문헌

-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23-26.
- 남광우, 김호용, 이성호, 이상학, 하수욱, 최현. 사회경제적 지리정보활용 및 데이터 요구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8(3):50-54.
- 류창규. 2001. 한국산업구조변화의 패턴과 그 요인. 전남대 석사논문.4쪽.
- 백태경, 신용은. 2003. 수치지도를 활용한 주제도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6(4): 99-108.
- 주수연, 이선영. 2004. 부산지역 경제구조 및 산업연관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2(1): 180pp.
- 안기돈. 오정일. 2006. 우리나라 15개 시·도별 인구가동과 일자리 수 변화 간 인과관계. 산업연구원. pp.15-16.
- 이주영. 1996. 부산시 산업의 분포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69쪽.
- 임동록. 2000. 부산시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pp.4-6.
- 최재녕. 2005. 경기북부지역 산업구조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1):149-150.
- <http://www.nso.go.kr> **KAGIS**